

알림터

<고 황골>

문리대 어울마당

문리대학생회는 '외래문화의 배경과 과학생태'를 위해 오는 29, 30일 양일간 '문리대 어울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후 1시부터 김봉이와 판국을 시작으로 개막식, 통일 응원전 및 과별 갈라콘서트, 등이 열리며, 다음날인 30일에는 체육대회, 퀴즈 대회와 문리인의 밤의 순서로 진행된다.

생물학과 전시회

생물학과 학술과 '오리'는 오는 29, 30일 양일에 걸쳐 '생태 조류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학우들의 연리한 관심을 위해 장소는 문리대 휴게실이라고,

정경대 대통령 개막

정경대 학생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경인의 함성'을 개최한다.

축주·배우자·각 과별 종목별 결승선을 시작하는 이번 대회는 오후 7시부터 정경인의 밤이 교수, 조교 등들의 사단 정경인의 숨겨진 이야기 등 노년극에서 열린다.

한빛 문학회 시상

문리대 동아리 '한빛문학회'는 이번 문리대의 '어울마당' 행사를 맞이하여 29, 30일 양일에 걸쳐 문리대 앞 벤치에서 시상식과 시

알림터

소리결 정기공연

한대의 노래 '소리결'은 오는 11월 5일 5시반, 6일 6시반 A, V센터에서 제2회 정기공연을 갖는다.

노래극형식으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은 경희1번지 아저씨가 찬조 출연한 슬라임이 상연되며 선 작순으로 빵과 우유도 제공된다.

동아리의 밤 개최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의 밤'을 오는 30일 오후 5시부터 크라운관에서 개최한다.

1부는 '넋따'의 팬클럽 연주와 '김도부'의 대원 및 목상범, GLEF의 합창, '소리결'의 수화노래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2부에서 '노래여왕'의 노래극과 '해방'으로 가 공연된다.

<서천골>

친추 작품공모

문화회 친추가 시, 시조부문은 3편이상, 소설, 수필부문은 2편 이상으로 작품을 공모한다.

인상은 11월 23일까지 학생회관 7층 716호실에서 접수를 받으며 당선된 원고는 소정의 교료로 지급된다.

알림터는 학과 동아리의 크고 작은 소식들로 독자여러분이 꾸미는 란입니다.

동아리 노래 한마당

동아리 연합회는 학생회관 입주와 가을대회를 맞이하여 오는 31일 2시 학생회관 앞 주차장에서 '동아리노래한마당'을 개최한다. 바깥개비, 소리산하 등이 찬조출연하는 이번행사에 입상할 경우엔 상품과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T를 증정한다.

일본어 Speech대회

일본어학회에서는 오는 1일 오후 1시 한누리극장장에서 '일본어 Speech대회'를 개최한다.

참가희망자는 일상생활속에서 자유로이 선택한 소재를 10분간의 원고분량으로 오는 30일까지 일본어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영문 한마당 '90

제1회 영문한마당 '90'이 영어영문학과 학생회 주최로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 공과대학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다.

영문학과 문화제 및 음악제로 나누어 진행되고, 음악제에는 외국어대 노래 '작은연못'의 특별공연도 마련되었다.

영화 시상식

가칭 '경희TV준비모임'과 영화 '빛사냥'이 '공동시사회'를 갖는다. 시사회는 30일 1시반 3호관시청각실에서 있었다.

가칭 '경희TV준비모임'은 추계농촌활동, 교통문제, 군문제 등 보도 기획프로그램 '빛사냥'은 기록영화 '철레의 모든 기록과 범민족대회를 담은 '조선에 피가 흐른다'를 상영.

우민화 정책 가속시킨 지배자의 충실한 대리인 — 스포츠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바라며

시대적 목적과 가치에 부합해 서 발전되어 가야 할 체육이 일제의 식민지교육과 미제국주의의 무작정적인 기능위주의 스포츠문화로 받아들이고 정착시키면서 한반도에서의 체육의 현재적인 조건의 제도적인 틀속에서 잠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당면해 왔었다.

돌아보면, 우리의 전통체육 문화는 민중의 삶과 생활을 매개로 신체문화와 결합하여 전통성을 갈라주고 즐거움과 흥겨움을 주는 그 자체이다.

그러나 일제의 근대적 체육, 미국의 '기능주의 스포츠' 도입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통체육문화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말살당하고 오히려 스포츠가 독재권력의 지배자의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마침내 반 민족적, 반 계급적, 반 사회적 질서로 편입되어 보는 스포츠, 귀족, 엘리트 스포츠가 관을 치면서 스포츠의 갈등화 현상마저 낳고 말았다.

그렇다. 스포츠문화가 아니라 불타는 5광대에도 민중이 참가하고 행하는 스포츠가 아닌 보는 스포츠로 규정지우며 민중의 의식을 획일화 시켰는데 더구나 6공화국에 와서야 스포츠까지 등장하여 이제 보다 더 스포츠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현재 스포츠인론 34는 90년 5월과 6월을 기해 대중성을 이용한 퇴폐, 음란, 저질적인 색안경, 소설 기사를 실어 사회적 불합치와 도덕적 타락을 몰아넣고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학우에게 들은 얘인데 학기초에 지를 요정했다니

착을 통한 독점자본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하고 민중의 해소할길 없는 불만과 고민, 열화되지 않는 여러시간을 왜곡된 일시적 해방감과 말초신경의 쾌락속에 매몰시킴으로써 각성된 정치의식으로서의 성장을 가로막고 우민화를 행하는 지배체제의 충실한 대리인이 되고 있는 스포츠인론의 자행적인 정책은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3개 스포츠인론추진에 대해 같이 사창을 강령한 추진이다.

첫째, 스포츠인론은 사회체육을 위시한 민중체육의 보급에 전력을 기울인다.

둘째, 엘리트, 프로스포츠 선정기에서 탈피하여 대중적이며 민중적 스포츠가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전반적인 타락과 퇴폐화를 보급하는 스포츠인론의 외설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네째, 3개스포츠사는 스포츠의 본질을 왜곡시킨 결과에 책임지며 즉각 사과 해명하라.

권혁웅

<제대 체육>

불편 가중시킨 의료회비 현실성 있는 대안 조속히 요구

7000원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는 그 돈을 잃어버렸다(?) 등록금을 납부할 때 같이 갔던 의료회비를 돌려준다는 소식을 듣고 시험때문에 바빠서 못가다가 시험날이 가서 지금을 요정했다니 이미 기간이 끝났다고 안주느니라. 우리 강의실이 있는 의약관에는 돈을 돌려 준다는 공고조차 붙지 않았다. 이번 학기 등록금 2차, 3차 기간까지 확실한 공고를 붙이는 학교 측이 이런 일에는 왜 공고를 붙이지 않는가? 괜히 돈을 썼다가 다시 돌려 받는 것도 귀찮은 일인데 공고를 확실하게 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학우에게 들은 얘인데 학기초에 지를 요정했다니

아직 시기가 많았다고 대학주보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하고 대학주보에도 공고가 안 나왔다고 한다.

선전·선동효과 큰 커뮤니케이션

10월주제 '대자보'

우리나라에서 대자보라는 말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주로 방(榜) 또는 벽신문(壁報)라는 말을 통칭되었다.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대자보라는 새로운 용어로 등장하면서 대자보는 이제 우리들의 일상용어처럼 귀에 익숙해져 있다.

이 대자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집정관인 제5공화국이 출범한 80년초부터 대학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군사정권타도' 등의 벽신문의 등장에서 그 효시를 찾을 수 있을것이다.

원래 대자보라는 용어는 중국(중공)에서 만들어진 고유명사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자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유입되었을 것은 틀림없다. 중공은 제2차 국내혁명시기(1928-1937)에 당시 홍콩 제4군사령부의 주력사령관과 당대표인 모택동이 공동명의로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집정관인 제5공화국이 출범한 80년초부터 대학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군사정권타도' 등의 벽신문의 등장에서 그 효시를 찾을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한강에 떠돌고 있는 국·사립사립대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을 철저하게 분쇄해 내고 급변한 공무(교육)장악을 교육운동단체인 철위회와 교육운동단체 분쇄를 위한 공동 투쟁 위원회) 속에서 교육정착의 기본 원리를 견지하면서 투쟁해 나간 것이다.

명예기자석

명예기자석은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들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2~4매
◇보낼곳 : 서울 수원 <본사편집실>

경희 일반학우 입장에서 볼때 7천원이나 되는 돈을 환불해 주는 데 있어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학교측의 잘못이라 생각된다.

말이 나온김에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보자.

국민 개보현이 이루어진 마당에 이 제도가 어떤 의의를 갖는지 모르겠다. 학생수첩을 보니 의료비 지급 영수증과 공제비 지급 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일반보험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런 실정이나 이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는 학

교측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런 제도는 마땅히 없어야 하며 만약 계속 존속시키려면 등록금 납부할 때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게 하든지 역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공과로도 확실하게 돌려주든지 해야 할 것이다.

세금처럼 보험금을 내고 있는 가정에 의료회비를 첨가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받지도 않게 억지로 가입시키는 것은 가계에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학교측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홍성준

<의대>

한 병 구

기예 그 절정을 이루면서 그후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공용어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다. 대안에서 발행하는 비정월보(匪情月報)에 따르면 '대자보'란 중공에

이와같은 대자보의 속성을 읽어보면 마음은 자연히 우리나라 대학가에 나날고 있는 대자보를 생각해 보게된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가는 마치 대자보의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 자체를 나무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대학가의 대자보는 대학가의 대자보다워야 한다는 바램이다. 흔히 대자보라는 말만 들으면 달라지 성인의 집합체로 특징지어진다.

그렇다면 대학가의 대자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자보와는 무엇이 구별되어야 하는가?

"5공 출범후 대학가에 나날은 '군사정권타도' 등의 벽신문이 우리나라 대자보의 효시인듯"

대자보가 어떤 내용을 취급하는 것인지는 월간월보 할 생각이 없다. 다만 표현만이 라도 지성인 다운 배설을 풍겼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가끔 대자보를 쳐다보면서 그 너무도 유치하고 저속한 표현에 비애를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보자.

교원 공개 채용에 대하여

89년 9월, 교원 종합 대책안이 발표된 이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한 준비는 척척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속에 이번 교원 채용에대한 위원회 결정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문교당국은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을 회피, 전가하려는 문교 당국과 정권의 기만 술책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남한 사회 교육의 황폐화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공히 인식되고 있는 바, 현재 문교당국이 있는 교원

저하 낮은 교육들이 설명된다. 즉, 교원 적체의 문제는 무연성 아니라 왜곡된 교육정책 속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이의 1차적 책임 소재는 문교당국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시행'이라는 통로를 통한 개인적 해결이라는 논리로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

이다. 그 다른 하나는 교육원론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으로써, 교육정책을 통한 자본의 논리 재산상과 그에 근거한 계급 정당의 독재유무'가 그것인데 우리는 이를 좀더 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10년째 전권을 무너져서 그 의식은 100년을 구가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육은 문명가야 할 수 있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병가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겠다. 한국 현대사를 살펴보면 몇개의 정권과 정당이 일어났고, 붕괴되기도

제 그것이 명확한 문제의 본질로써 나타난다면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부딪쳐야 할 것이다. 노조권이 이야기하는 범죄와의 전쟁에서'의 본질은 곧 전면적인 계층적 탄압의 뜻을 포함하고 있음을 잊지말자.

이를 정리하면 급변한 경제체제를 비롯한 일련의 공권 종합책안은 그 현상에 있어서는 교원체제의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정권차원의 교육정상화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이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체제 순응적 이데올로기와 사람을 재생산 해냄으로써 민중의 계층적 각성과 단결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계급적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한강에 떠돌고 있는 국·사립사립대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을 철저하게 분쇄해 내고 급변한 공무(교육)장악을 교육운동단체인 철위회와 교육운동단체 분쇄를 위한 공동 투쟁 위원회) 속에서 교육정착의 기본 원리를 견지하면서 투쟁해 나간 것이다.

선생님 길들이기(?)

교원적체 문제는 우연이 아닌 왜곡된 교육정책 속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임에도...

적체현상 역시 그에 부리를 두고 있다. 현재 사회에 지원되고 있는 문교예산의 지원비율이 4.4%밖에 안된다는 사실로부터 사회의 의제성과 그로인한 상치 교사(국어교사가 한문도 가르치고 국민윤리도 가르치는 현상)의 급증, 공급 요구에 비해 현

하는 것이다. 이에, 국·사립 사법인들은 이땅의 교육을 책임지려는 자들로서 기록권에 집착한 개별적 투쟁이 아닌 이미 국공립 사대에서는 이의 원칙에 합치교사(국어교사가 한문도 가르치고 국민윤리도 가르치는 현상)의 급증, 공급 요구에 비해 현

해왔으나 그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든간에 동질성을 유지해왔고, 자신들의 계층적 이해를 대변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더이상 관성에서 젖은 소모적 싸움을 진행시키지 말고, 계급 콤플렉스를 극복하자. 이

2000년대를 세계속의 기업 대한생명과 함께

대한생명은 젊음의 꿈을 더욱 소중히 생각합니다.

1. 모집부서 및 응시자격

모집부서	모집학과	인원	응시자격	근무지역
영역관리	상경계열 법정계열 문계 인문, 사회계 (수학과포함)	450	1. 1962. 1. 1 이후 출생한 자 2. 4년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및 '91. 2월 취득예정자 3.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학력의 경우 '90. 12. 31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국인원

2.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필기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함)
다. 3차 - 면접 및 적성검사 (2차 합격자에 한함)
라. 4차 - 신체검사 (3차 합격자에 한함)

3. 서류전형

가.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당사 소정양식) 2통
●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990년 11월 21일(수) 14:00 각 접수처별 게시

4. 필기시험

가. 일 시 : 1990년 11월 25일(일) 오전 09:00
나. 장 소 : 덕수상업고등학교, 행당여자중학교
다. 시험과목 : 영어, 상식

5. 지원서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1990. 11. 1(목) ~ 11. 10(토)
(일요일 제외, 토요일은 15:00까지)
나. 접수기간 : 1990. 11. 5(월) ~ 11. 10(토)
다. 교부 및 접수처

교부 및 접수처	주 소	전 화 번 호
본 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789-8212~5
중 부 총 국	대전시 중구 대동 2동 452-107	252-8251~3
광 주 총 국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6-1	232-0806~7
대 구 총 국	대주시 중구 동남동 2가 25-4	423-3701~10
부 산 총 국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52-4	463-3053~8

6. 기 타

가. 우원접수는 본사로만 하되, 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우송용 봉투(주소지, 우표부착)를 동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보훈대상자는 가점혜택을 부여합니다.
다. 입사지원서는 본인이나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고, 차후 기재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입사)을 취소합니다.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고 63층 대한생명사옥